

# 조선후기 종묘 신실(神室)공간의 구성방식과 성격

구혜인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 방문학자, 한국공예사 전공

human47415092@gmail.com

- 머리말
- 신실 공간의 구조와 실내구성
- 신실 내부의 기물 제작과 배치
- 기물들의 상호관계와 성격
- 맺음말

## I. 머리말

---

조선시대 종묘 정전(正殿)과 영녕전(永寧殿)의 신실은 역대 선왕(先王)과 선후(先后)의 신주를 봉안하고 제사지내던 장소이다(도1).<sup>1</sup> 본 연구는 조선 후기 종묘 정전 신실 내부에 봉안된 신주 및 각양기물(儀物·儀裝·祭器·木家具)의 조성 방식과 상호관계 및 성격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sup>2</sup>

기존의 종묘에 관한 연구들은 역사학, 종교학, 건축학, 미술사학, 음악사학, 복식사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진행되어왔다. 그만큼 종묘를 주제로 한 연구사 정리는 별도의 논고가 필요할 정도로 그 성과가 방대하다. 그 중 종묘를 ‘공간’이란 측면에 초점을 맞춘 기존 성과들을 구분해보면, 건축 구조에 관한 연구, 건축 및 운영과 관련한 정치적 혹은 역사적 사실들과 의미를 파악하는 연구,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례절차나 동선에 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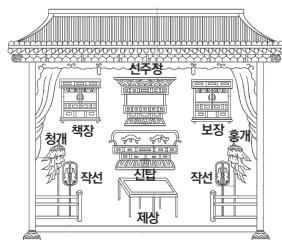
---

1 신주는 조상의 칭호를 써넣어 혼령이 깃들도록 한 나무패이다. 신주는 이미 중국 하문주 시대부터 존재하였고, 그 형태는 시동, 목주, 석주, 속백, 추, 중, 복의, 혼백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였다. 최순권, 「신주고(神主考)」, 『생활문화연구』 2호(2001), 61쪽.

2 종묘에 비치되는 각종 의물, 의장, 제기, 목가구는 각 기물의 용도와 성격에 따라 분류하는 동시에 기존 연구들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의물로는 신의(神倚), 어보(御寶), 어책(御冊) 등이 있다. 신의는 신주를 싣는 신탁으로 봉출할 때 신주를 기대어 놓는 기구이고, 어보는 왕실의 위호를 나타내는 도장이다. 어책은 왕비와 세자빈을 책봉하거나 국왕, 왕비 대비, 왕대비, 대왕대비 등에게 존호를 올리는 문서이다. 이외에 교명(敎命), 국조보감(國朝寶鑑)이 있다. 의장은 신실 내부를 장식하던 면장(面帳), 주렴(朱簾), 작선(雀扇), 청개(靑蓋), 홍개(紅蓋) 등을 의미한다. 제기는 제향시 제물을 담던 각종 기명들이다. 목가구는 의물을 봉안하는 신장(神幬), 싣(神榻), 보장(寶幬), 책장(冊幬) 등과 제기를 진설하기 위한 제상(祭床), 준소상(樽所床) 등을 포괄한다. 그 중 목가구라는 용어의 ‘가’는 가옥 보다는 넓은 의미의 건물을 가리키며, 목가구는 건축물 내부에 갖춰진 나무 재질의 장, 책, 탁, 상 등을 포괄하는 일반적인 학술용어이다.



도1-종묘 정전의 정면



도2-종묘일간도, 『종묘의례』,  
1706년(숙종32)

연구, 제례 시 소용되는 유무형의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 등이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졌다.<sup>3</sup> 더불어 종묘 공간에 배치되는 신주 및 각종 기물인 어보, 어책, 제기, 목가구, 주렴 등을 개별적으로 분석한 연구들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sup>4</sup> 각각의 연구들은 종묘와 제사라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 3 현재 여러 분야의 연구자들에 의해 종묘에 관한 연구들이 심도 깊게 진행되는 중이다. 본고의 한정된 지면에서 기존의 연구 성과들을 충실히 정리하기는 어려우나 분야별 연구경향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건축학 분야에서 종묘 정전이란 건축물 자체나 건축학적 의미에 관한 연구, 건축물 내외에서 행해지는 의례의 동선에 관한 연구 등이 이루어졌다. 그 중 본고와 관련된 정전 공간에 대해 정전 내에서 이루어지는 제례 절차대로 3단구조의 공간(하월대·상월대·신실)으로 구분한 바 있다. 역사학, 종교학 등에서는 종묘 운영과 제향에 초점을 맞추어 정전과 영녕전의 건축과 운영, 신주의 조천(祔遷)논의와 의미, 제사와 제물, 의례절차와 동선 등 종묘제도의 성립과정과 의례적 실천에 관한 분석에 집중해왔다고 여겨진다. 또 종묘의 제물종류나 제향시간 등에 관한 연구도 있다. 연구사만을 주제로 별도의 논의가 가능할 만큼 기존 연구 성과가 방대하므로, 본고에서는 선행연구 전체를 정리하기보다는 본고의 주제와 밀접한 연구들을 참고문헌에 실는 것으로 연구사 정리를 대신하겠다.
- 4 미술사학 분야에서는 종묘 신실에 배치된 각각의 물질적 요소들을 연구 주제로 추출하여 천착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그 중 장경희는 종묘 신실에 배치된 의물을 전체적으로 논하는 연구와 더불어 조선후기 신실 내 목공예품과 주렴에 관한 단독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이 연구들은 주로 신실 공간 내 배치와 상호 관계보다는 보다는 제작양상과 제작기술 분석에 집중하였다. 장경희, 『조선 왕실의 궁중 의물』(2013, 민속원); 장경희, 「조선후기 종묘 주렴 연구」, 『조형디자인연구』 14(2011), 한국조형디자인학회; 장경희, 「조선후기 종묘 신실 내 목공예품의 종류

연결되고 교차한다.

종묘 공간에 관한 활발한 연구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간과된 부분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신실 내부의 공예품 조성방식에 대한 종합적 접근으로, 신실 내부에 배치된 신주, 의물, 가구, 의장, 제기 등의 전체적인 성격이나 상호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못했다고 여겨진다. 다양한 분야에서 심화된 연구가 축적되고 있는 만큼 이 시점에서 기왕에 연구 성과들과 사료 및 유물들을 종합하여 종묘 신실의 조성방식과 성격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신실 내의 기물들은 단순히 한 공간에 모아놓은 물질들의 집합이 아니라 밀접한 상호관계속에서 배치되고 사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물의 조성과 배치방식을 통해 신실 공간의 성격을 새로운 관점에서 이해해 볼 수 있다. 더불어 종묘 신실이 물리적으로 한정된 공간 속에 오백 년에 걸쳐 여러 대수의 조상을 모시고 있는 특수 공간인 만큼 다양한 상황들이 발생했던 사실이 확인되는 바, 사례 분석을 통해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가던 당시의 상황들도 다루고자 한다. 이를 통해 조선왕실이 종묘 신실의 공간적 형식과 구성을 보위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시기는 숙종대부터 고종대까지로 설정했다. 현재 종묘 신실에 비치된 대부분의 기물들이 임란 이후의 종묘 중건과 증축 과정에서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숙종대 편찬된 『종묘의례』의 종묘일간도(宗廟一間圖)가 조선후기부터 현재까지의 종묘 신실배치의 모본이 되므로 숙종대를 포함한 조선후기의 시기를 집중적으로 살펴겠다(도2). 물론 조선 전기에도 신실 내 기물과 배치방식이 동일했을 것으로 유추되나

---

와 제작실태: 『부묘도감의례』를 중심으로, 『동방학』 40(2019),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또 종묘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됨에 따라 관련 공예품의 복원 및 재현을 위한 연구도 더불어 진행되고 있다.

아직 조선전기 신실 조성방식에 관한 사료나 도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조선후기의 사료와 유물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 또 종묘 신실 구성물들이 조성된 시기가 조선전기부터 대한제국기까지 폭넓고 나아가 현대에 개수(改修)되기도 하였으나, 전체적인 공간배치와 구성은 조선후기에 대부분 이루어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분석 대상은 종묘 정전 신실에 봉안된 신주를 비롯하여, 그 주변의 갖가지 기물들이다. 즉 신주를 중심으로 각종 의물(어책·어보 등), 공간 치장을 위한 의장물(면장·주렴·선·개 등), 각종 제기(변·두·보·궐·향로 등), 의물 봉안과 제기진설을 위한 목가구(신장·신탕·책장·보장·제상·준소상 등)들의 상호 관계와 성격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겠다.<sup>5</sup>

이를 위해 신실 공간의 구조를 용도에 따라 구분하고, 부묘도감의례에 의거해 신실 내부에 채워진 각종 기물의 배치방식과 특징들을 살핀 후, 실제 공간 조성 및 운영 사례들을 분석함으로써 신실이란 공간을 다각적으로 이해해 보고자 한다. 기존에 신실 공간을 개론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이나 혹은 신실 기물을 개별적으로 분석하던 경향에서 벗어나 각 기물들이 공통적으로 내재한 속성들을 파악한 후 다양한 기물들이 조합되어 조성된 공간의 성격을 파악함으로써 종묘 신실을 새로운 관점에서 조망해보겠다.

## II. 신실 공간의 구조와 실내구성

종묘 정전의 신실은 동당이실제(同堂異室制)를 택하여 19개의 실로 나뉘

5 『종묘의례』(1706)의 종묘일칸도에서는 종묘 정전의 일간이 영녕전과 같다고 명시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내용은 대체로 영녕전 신실에도 적용할 수 있겠으나 별도의 분석이 필요한 요소들이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함께 다루지 않겠다.

어졌으며 각 실마다 독립적인 공간으로 조성되었다. 신실은 사용되는 목적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용도로 나눌 수 있는데, 즉 신주봉안을 위한 공간과 제향진행을 위한 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도3-도8). 신주봉안 공간은 평소에 조상신이 깃들여진 신주를 신장(신주장)이나 신탑에 모셔놓은 공간이고 제향공간은 제상에 제물을 차려 조상신이 흠향(歆饗)하시도록 의례를 치르는 공간이다.<sup>6</sup>

지금까지 기존 연구들에서는 신실 공간을 봉안공간과 제향공간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공간으로 다뤄왔다. 그리고 신실 공간에 조성된 기물의 배치에 대해서 이미 개론적인 설명들이 충분히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신실을 신주봉안과 제향진행이라는 두 용도로 구분하고자 하는 것은 한 공간일지라도 부분 공간마다 부여된 주된 역할이 다르고 이와 연동하여 공간 내 기물의 종류와 배치방식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더불어 평소 제향을 올리지 않고 봉안만 이루어진 시간도 많아 공간별로 사용되는 시간도 다르다는 점에서 신실은 하나의 공간이면서도 동시에 두 가지 공간들이 결합된 복합공간으로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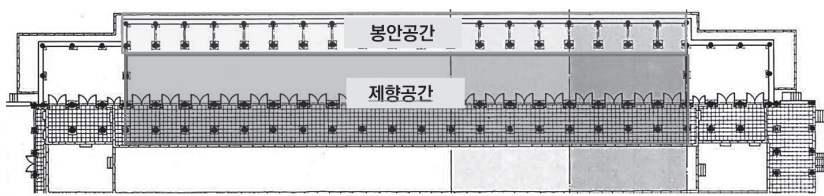
본 장에서는 종묘 정전 신실을 봉안공간과 제향공간으로 구분하고 각 공간에 조성된 각종기물의 종류와 전체적인 배치를 도면과 유물들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기반으로 다음 장에서 조성방식의 특징과 성격 및 개별 사례를 분석하겠다.

---

6 종묘 정전 신실에서 봉안과 제향이란 두 가지 기능이 함께 수행되고 각각의 역할에 따라 공간이 전후로 구분되는 방식은 유교의 묘침제(廟寢制)와도 상통한다. 조선에서 묘침은 종묘를 가리키는 용어였으나, 본래 유교에서 묘침은 유교적 건축의 기본형식을 의미한다. 즉 전묘후침(前廟後寢)으로, 묘는 조상의 신위나 영정을 봉안하고 제향을 지내는 장소로 전면에 배치하는 공적공간이고, 침은 궁궐의 침전처럼 산자의 장소로 후면에 배치하는 사적공간이다.

## 1. 봉안공간의 구조와 조성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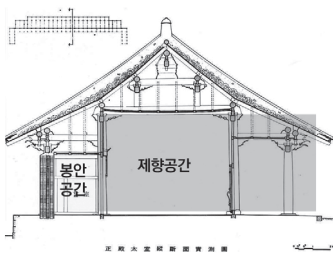
봉안공간은 종묘 정전의 북쪽 벽의 후퇴칸 영역에 해당하며 일명 감실(龕室)이라고도 불린다(도5-도8).<sup>7</sup> 봉안공간을 표시하는 건축적 장식들이 있는데, 즉 감실 정면의 문 윗부분(문탑상(門榻上))에는 나무로 조각된 유음과



도3-종묘 정전의 봉안공간과 제향공간



도4-봉안공간과 제향공간,  
종묘 정전 신실의 용도별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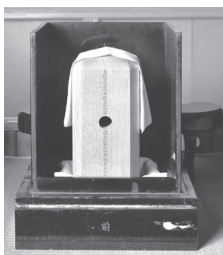


도5-봉안공간의 감실 위치,  
정전 북쪽벽 후퇴칸

- 7 감실이란 종묘의 감실 외에도 성스러운 대상(신주·초상화·초상·불상·사리·경전 등)을 표상하는 상징물들을 봉안하기 위한 공간이다. 최영숙, 『조선시대 목조감실(木造龕室) 조형 연구: 18세기 이후 조성된 왕실조성 감실을 중심으로』, 『조형디자인연구』 16(2013), 98-99쪽. 조선시대 종묘의 감실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가장 좁은 의미로 신주를 봉안하는 신장, 다음으로 신실의 후퇴칸에 위치한 신주 봉안용 공간, 가장 넓게는 신실 자체를 의미한다. 조선 후기 부묘도감의례의 감실은 주로 신장을 치청하고, 실록의 감실은 세 가지 의미를 모두 포괄한다. 본고에서는 신장과 신실이란 용어를 사용하므로 중간단계의 감실, 즉 신주장, 책장, 보장 등이 배치된 신실의 후퇴칸 공간을 감실이라고 부르겠다.

풍혈이 단청으로 장식되어 있다(도6). 그리고 실내 기둥인 영간(楹間) 사이에는 면장(面帳)과 주렴(珠簾)을 겹겹이 드리워 봉안공간을 구조적이면서도 장식적으로 분할했다(도7).<sup>8</sup> 그리고 봉안공간 내부에는 신장, 신탕, 책장, 보장 등을 배치하고, 감실 내부의 좌우에는 우림(隅簾)을 드리워 독립적인 봉안공간으로 구분하였다(도8).<sup>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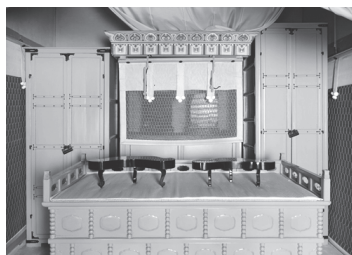
봉안공간에는 신주를 비롯하여 어보, 어책, 교명, 국조보감 등이 함께 봉안되었다. 신주는 제향 시에만 봉출되고 평소에는 신독(神櫓)에 담기어 신주장에 봉안된다. 더불어 어보 등 각종 의물들은 신주장 양 옆의 책장과 보장에 나뉘어 봉안되며 신주처럼 봉출하여 작헌례와 고유제 등 의례를 행하기도 하였다.<sup>10</sup>



도6- 정조선황제신주,  
종묘 신실



도7- 신주를 신탕에  
봉출한 모습, 정전 13실  
정조선황제·효의선황후  
신실정조선황제신주



도8- 신주를 신주장에 봉안한 모습,  
정전 13실 정조선황제·효의선황후  
신실

- 8 현재 면장은 황색으로 염색한 명주로 대한제국기나 혹은 현대의 문화재 복원 과정에서 황제국 제도에 맞춰 염색된 것이다. 원래 조선후기 면장과 주렴을 비롯한 목가구들은 모두 붉은색 계통 혹은 흑색으로 염색되거나 옷칠로 장식되었다.
- 9 감실에 조성된 각종 의물들의 제작 담당 및 조달 부서, 제작방식, 제작재료에 대해서는 부묘도감의궤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중 신장, 보장, 책장, 신탕, 답장의 제작실태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로는 장경희의 연구(2019)가 있다. 본고에서는 제작기술의 관점보다는 신실 공간의 기물 구성과 배치방식을 주제로 다루므로 이를 집중적으로 논하고자 하며, 부묘도감의궤에 기록된 기물별 제작방식과 조달체계에 대해서는 차후 별도의 논문을 기약하겠다.
- 10 『春官通考』宗廟親上國朝寶鑑儀; 宗廟永寧殿奉安寶鑑權安儀; 宗廟追上尊號時王世孫上冊寶儀 등; 『宗廟儀軌續錄』親祭.

우선 신장은 선왕과 선비의 신주와 신독을 봉안하는 장이며 신주장(神主藏) 또는 (좁은 의미의)감실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신장은 각 감실의 정중앙에 남향하여 1좌씩 설치되었다.<sup>11</sup> 신장 내부의 바닥에 삼중의 욱석(褥席)을 깔 후 서쪽에 왕의 신주를 두고 동쪽에 왕후의 신주를 둔다.<sup>12</sup> 신장의 전면에는 문을 다는 것이 아니라 거북 모양의 무늬로 짠 발인 주렴을 내려 내부를 가렸다(도8). 현전하는 신장의 윗부분은 마치 당가의 형태처럼 단청으로 장식되었는데, 이는 신장 좌우의 책장과 보장에는 없는 장식으로 신장이 갖는 위격을 장식을 통해 표시했다고 할 수 있다.<sup>13</sup> 그리고 신장 아래에는 답장(踏掌)을 깔았는데 대부분 정면이 공개된 종묘 신실 사진에서는 신탕에 가려져 답장을 볼 수 없으나, 숙종대 『종묘의궤』의 「종묘일칸도」에 답장 위에 올려진 신장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도2).

신장 앞에는 봉출한 신주를 모시는 신탕을 배치한다. 신탕은 평상(平床)의 형태로, 평소에는 신주를 신장에 모셔놓다가 제사 때 신탕으로 봉출하여 신의(神椅)에 의지해 모신다. 신탕의 상면에 신장과 마찬가지로 세 겹의 욱석을 깔고 그 위에 신의를 놓았다(표3-2-3). 평소에는 신탕의 주위에

- 
- 11 신장을 만드는 구체적인 법식이 정해져 있었다. 재질은 목재로 만들었으며 장의 크기는 신실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높이는 약 7척 내외, 좌우 폭은 약 5척 내외, 전후 폭은 약 3척 내외 정도로 제작되었다. 신장은 왕이 앉는 평상인 어탑(御榻)과 어탑 위에 모형으로 만드는 단집인 당가(唐家)의 결합 형태와 유사하다.
- 12 신장에 신주를 봉안하는 순서는 서쪽 끝에 국왕의 신주를 두고 그 왼쪽(동쪽)으로 왕후의 신위를 차례로 봉안했다. 이는 서쪽 끝에 제일 높은 신주를 두는 서상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종묘 정전 제 1실을 예로 들면, 서쪽부터 태조, 신의왕후, 신덕왕후의 순서로 신주를 두었다.
- 13 당가는 생시의 궁궐 안 어좌 윗부분에 설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흥례 혼전이나 선원전 등에서 왕이란 존재가 머무는 윗 공간을 장엄하기 위한 용도로 설치되었다. 박희용·김종기·최종철·홍대형, 「朝鮮時代 宮闕 正殿 唐家の 형식과 역할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2(2006), 172-174쪽. 현전하는 신장의 상부장식도 신주가 모셔진 공간을 장엄하는 방식이자 양 옆의 책장과 보장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상위의 공간이란 점을 알려주는 표식으로 여겨진다.

휘장을 들렀는데 제향 시에는 앞의 면장(面帳)을 걸어 감실의 양옆 기둥에 있는 갈고리에 걸었다(도7). 신주를 신장에 넣어두었다가 제향시 신탕으로 봉출한 후 마치 살아있는 부모를 봉양하듯 신의라는 등받이를 대어주는 행위는 유교 제사에서 보이는 의례방식이다. 신주를 신장에서 신탕으로 이동시키는 방식은 조상신을 모시고 나오는 의미이고 신의도 신체의 곡선을 따라 곡선의 형태로써 실제 사용하는 물건처럼 제작했다. 그리고 제향이 끝나면 신주를 다시 신장으로 모시는데, 이때 문을 설치해서 여닫는 것이 아니라 여러 겹의 장과 주렴을 드리우는 것은 평소 왕의 침전 구조를 재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봉안공간의 구조를 통해 생사의 공간에 존재했던 여러 요소와 장치들이 봉안공간에 배치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봉안공간에는 신주를 포함하여 주인공과 관련된 각종 의물들과 이를 봉안하는 목가구도 배치되었다. 신장을 중심에 두고 좌측(동쪽)에는 보장과 신주장의 우측(서쪽)에는 책장이 놓인다(도8). 보장은 시호, 휘호, 존호를 새긴 어보(금보·은보·옥보) 등을 주로 넣어둔 가구이고, 책장은 시호, 존호를 새긴 금책, 옥책, 죽책 등과 대왕의 치적을 적은 국조보감 등을 보관하는 가구이다. 어보와 어책 역시 신주와 밀접하게 관계된 의물이므로 받들어 모시다는 ‘봉안’이라는 용어를 사용해도 무방하며 『경모궁의궤』 「봉안의물도설(奉安儀物圖說)」에서도 신의, 신탕과 인장(보장), 책장을 봉안의물도설에 실었다.<sup>14</sup> 봉안공간에서 신주는 가장 높은 위격을 가진 존재라 할 수 있고, 그 외에 신주와 관계된 다양한 의물들도 봉안의 대상으로 존재했다고 할 수 있다.

---

14 『景慕宮儀軌』 「奉安儀物圖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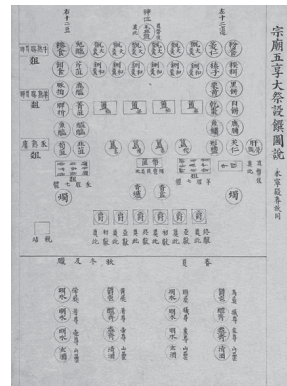
## 2. 제향공간 구조와 조성방식

제향공간은 제사가 이루어지는 감실 앞에 위치한다. 제향을 올리지 않는 평소에는 제상과 준소상을 보관하였다가, 제향시에는 감실의 전면에 4개의 제상을 설치하고 신실 전퇴간 밖에는 1개의 준소상을 배치한다(도4). 신주와 각종 의물이 항시 봉안된 감실과 달리 제향공간은 제사를 거행할 때에만 사용되고 평소에는 제상, 선, 개만 비치된 공간으로 제향시 한시적으로 활용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도9). 제향공간 전체에 지의(紙衣)를 깔았는데, 감실 앞에 연폭으로 설치한 제상 아래에 작은 구멍을 뚫은 판지구를 만들어서 신관례 때 관창(灌鬯)할 수 있게 하였다.

제향시 제상과 준소상 위에는 각종 제기들을 진설한다. 우선 제상에는 변(邊), 두(豆), 보(簠), 궤(簋), 등(登), 형(鉶), 조(俎), 모혈반(毛血盤), 생갑(牲胛), 간료등(肝膋瓚), 작(爵), 향로(香爐), 향합(香盒), 촛대(燭)를 올리고, 준소상에는 이(彝, 계이·조이·가이·황이), 준(尊, 희준·상준·작준·호준·대준·산뢰), 먹(鬯), 용작(龍勺)을 올린다. 제상과 준소상 위에 진설하는 제기들 외에도



도9- 평소의 종묘 신실의 제향공간, 유리건판사진, 일제강점기, 국립중앙박물관



도10- 종묘요향대제설찬도설, 『종묘의궤』, 1706년(숙종32)

표1-종묘오향대제에 소용되는 제기 및 제구

|       |    | 기종    | 제물 및 용도                    |
|-------|----|-------|----------------------------|
| 제상    |    | 변     | 실과와 건육을 담는 제기              |
|       |    | 두     | 김치·젓갈·국 등 주로 젖은 음식을 담는 제기  |
|       |    | 보     | 도량을 담는 제기                  |
|       |    | 퀘     | 서직을 담는 제기                  |
|       |    | 등     | 대갱을 담는 제기                  |
|       |    | 형     | 화갱을 담는 제기                  |
|       |    | 조     | 생고기나 익힌 내장을 담는 제기          |
|       |    | 모혈반   | 소양돼지의 털과 피와 썩과 서직을 담는 쟁반   |
|       |    | 생갑    | 희생을 담는 나무로 만든 사각 제기        |
|       |    | 간료등   | 희생의 간과 기름을 담는 등            |
|       |    | 작/ 작점 | 술을 담는 잔 / 작의 받침            |
|       |    | 찬/ 찬반 | 용찬, 울창주를 담아 신관례시사용 / 용찬 받침 |
|       |    | 향로    | 향을 피우는 제기                  |
|       |    | 향합    | 향을 담는 제기                   |
| 준 소 상 | 이  | 계이    | 명수를 담는 제기                  |
|       |    | 조이    | 울창주를 담는 제기                 |
|       |    | 가이    | 명수를 담는 제기                  |
|       |    | 황이    | 울창주를 담는 제기                 |
|       | 준  | 희준    | 소 모양의 명수와 예제를 담는 제기        |
|       |    | 상준    | 코끼리 모양의 명수와 양제를 담는 제기      |
|       |    | 저준    | 명수와 예제를 담는 제기              |
|       |    | 호준    | 명수와 양제를 담는 제기              |
|       |    | 대준    | 현주와 예제를 담는 제기              |
|       | 산뢰 |       | 현주와 청주를 담는 제기              |
|       | 먹  |       | 준을 덮는 굵은 포건                |
|       | 용작 |       | 용머리 자루가 달린 국자              |

의례 과정 중에서 제향공간에서 사용하는 제구로 축점, 폐비, 작비, 건비가 있다.<sup>15</sup>

종묘 제상과 준소상에 오르는 제기들은 특정 제물과 짝을 이루고 있다(도 10, 표1). 각 제기들이 진설되는 위치도 정해져 있으며 이는 모두 국가전례서

15 신실 안에서 사용되는 제기 및 제구 뿐 만 아니라 신실 밖에도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정(우정·양정·시정), 정먹, 정비, 확, 난도, 세뢰, 세, 이, 이반 등이 있다.

나 의례 등에 실린 진설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종실록』 오례의 찬설준뢰도에서부터 『국조오례의』, 『종묘의례』, 『국조속오례의』, 『춘관통고』, 『태상지』, 『대한예전』, 《종묘친제규제도설병풍》 등 왕실 전례서를 비롯한 예서, 의례, 도병 등에는 종묘 제사를 위한 제물진설도와 함께 제기도설들이 실려 있다. 제기도설을 통해 제기의 용도, 크기 형태, 재질, 무늬 등도 자세히 알 수 있다. 그 중 종묘의 오향대제는 대사에 속하며, 대사 중에서도 가장 많은 제기를 올리는 제사이다. 오향대제에는 작 6개, 변 12개, 두 12개, 보 4개(신위 하나당 2개), 례 4개(신위 하나당 2개), 등 6개, 형 6개 등을 올린다. 대부분 신위의 수와 상관없이 동일한 개수의 제기를 진설하나, 일부 제기(작·보·례)의 경우는 신위의 수와 연동되어 신위의 수가 달라지면 제기의 진설 개수도 함께 변화한다.<sup>16</sup> 즉 하나의 신위당 제기 중 작은 3개씩, 보와 례는 각각 2개씩 진설된다. 따라서 신위 수가 많을수록 제상 위의 제기 수도 상대적으로 늘어난다.

일반적으로 전례서나 의례에 수록된 제물진설도의 경우 2위의 신위가 올려진 진설도의 모습이며 3위의 신위가 올려질 경우 진설도에 그려진 모습과 차이가 있다(도10). 종묘 정전 신실 한 칸마다 소용되는 제기 및 제구들의 수는 상당히 많다. 신실 내 제상에 진설되는 제기는 약 60-80기이고 신실 밖 준소상에 진설되는 제기들이 약 20기이므로 이를 합치면 한 신실마다 평균 90여기의 제기 및 제구들이 진설된다고 할 수 있다. 정조대 편찬된 『매사문』의 전전대향제기(前殿大享祭器)에 의하면 정전의 실내와 준소에서 사용되는 제기의 총수가 1,083기이고, 전전과 후전에서 같은 날에 제향을 지낼 때에는 2,448기가 사용된다고 하였다.<sup>17</sup> 따라서 고종대

16 제사의 신위 개수에 따른 제기 개수의 변화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를 참고할 것. 구혜인, 『조선시대 왕실 제기(祭器)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9), 88-91쪽.

17 이범직·최순권 역주, 『역주 매사문』(민속원, 2017), 55-57쪽.

종묘 신실 내부에만 진설되는 제기의 수를 계산하면 약 1,500여기 내외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처럼 제향공간은 형형색색의 제물을 제기들에 담아 제상위에 진설하여 제사를 올리는 공간으로, 전체적으로 형(形), 재(材), 색(色), 광(光)의 다채로운 요소들이 조화된 공간이다. 봉안공간이 신주라는 핵심에 집중되어 있는 구조라면, 제향공간은 다양한 제물과 제기들이 넓게 진설되고 여러 명의 참여자들이 흠어져 각각의 위치에 도열하는 방식의 구조이다. 제향공간에 많은 제물과 제기들이 진설되었으나 혼란스러워 보이지 않도록 연출된 것은 각 신실의 제기들이 앞서 언급한 바대로 규범에 맞추어 제작되고 진설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많은 인물들이 한 공간에 모여 있으나 번잡하지 않은 것 역시 의주에 맞춰서 정해진 위치에서 움직이고 정지하기 때문이다.

종묘 신실 내 봉안공간과 제향공간 공간은 주렴과 장(幙)으로도 구분되었다(도7, 표3-2-2). 숙종대 『종묘의궤』의 종묘일간도에서도 확인되듯이 신실에는 넓은 주렴과 면장 등이 드리워져 있었다. 예를 들어 『철종대왕부묘도감의궤』 종묘신실소배(宗廟神室所排)를 살펴보면 ‘만정장일건(滿頂帳一件), 좌우익장이건(左右翼帳二件), 중면장일건(中面帳一件), 내면장일건(內面帳一件), 외면장일건(外面帳一件), 동벽홍목장(東壁紅木帳)’ 등이 기록되어 있다.<sup>18</sup> 신실은 주렴과 면장을 통해 봉안과 제향이란 두 개의 공간으로 나뉘기도 하고 하나로 합쳐지기도 하였다. 즉 제향을 올리지 않을 때에는 양 공간 사이를 면장과 주렴으로 겹겹이 드리워 구분하고 신실을 가렸다. 하지만 제향이 시작되며 면장과 주렴을 걷어 올림으로써 두 공간을 통하게 하여 조상과 후손이 만나는 새로운 공간이 펼쳐지게 하였다.

---

18 『哲宗大王祔廟都監儀軌』宗廟神室所排.

이처럼 신실 공간이 봉안과 제향이란 두 용도로 운영되었다는 사실은 단지 용도 차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 공간의 용도에 부합하는 각종 물질들, 즉 신주, 의물, 의장, 제기, 목가구들을 구분하여 배치함으로써 비로소 실현된다고 할 수 있다.

### Ⅲ. 신실 내부의 기물 제작과 배치

본 장에서는 신실에 배치된 신주를 포함한 각양기물의 제작과 배치방식에 대해 살펴보겠다. 종묘에서 소용되는 기물들의 제작방식과 배치를 분석하여 공통적인 속성들을 추출할 수 있다면 각각의 기물들이 조합되어 이루어진 종묘 신실 공간의 전체적인 특징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 1. 신주 및 기물의 정형성(定形性)

종묘 정전 신실에 배치된 신주 및 기물은 정형성이란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때 정형성은 가변성을 제어하고 전례를 유지하기 위해 재질, 형태, 크기 등을 일정하게 정했다는 의미로 규정할 수 있다. 조선왕실에서는 예서, 전례서, 의궤 등에 신주, 의물, 의장, 제기, 목가구 등의 재질, 형태, 크기 등을 제작방식과 함께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각각의 정형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정형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존재는 조상의 신령을 나타내는 신체인 신주이다(도6). 신실마다 왕의 신주와 왕비의 신주를 합해 기본 2위부터 최대 4위까지 함께 봉안되어 정전의 열아홉 신실에 총 48위의 신주가

봉안되어 있다. 신주는 종묘 전체의 핵심으로서, 정전이란 건축물은 신주라는 장방형의 작은 기물을 통해 공간적으로 구분되면서 통합된다.

종묘 신주는 연주(練主)로 형태상 우주(虞主)와 동일하다. 종묘 신주는 윗면이 둥글고 아랫면이 네모난 직육면체에 상하 사방에 혼이 드나드는 규(窺)라는 구멍을 만들었다. 『국조오례의』 신주도설(神主圖說)에서부터 우주의 형태에 기반한 연주의 형태가 정형화되었고, 『국조상례보편』에도 동일한 내용이 실렸다(도11).<sup>19)</sup>

우주(연주의 제도도 동일하다. 밤나무를 쓴다.)는 뽕나무를 쓴다. 길이는 1척이고(조예기척을 쓴다. 아래도 모두 동일하다.) 사방 5촌이다. 위쪽 정수리의 지름은 1촌 8푼이고 높이는 1푼이다. 4상은 각각 1촌 1푼을 깎고 네 모퉁이는 각각 1촌을 깎는다. 상하 사방에 구멍을 내는데 지름은 9푼이다. 궤는 백자판을 쓴다. 내례의 앞면과 정수리는 모두 비어 있다. 3면의 높이는 1척 1촌 8푼이고 넓이는 1척 9푼이다. 바닥 부분은 사방 1척 3촌이고, 두께는 4푼이다. 외궤는 덮개 쪽이 평평하고 4면이 수직으로 내려온다. 길이는 1척 4촌 5푼이고 사방 1척 2촌이며 두께는 4푼이다. 흑진칠을 한다.

위의 내용처럼 종묘에 모셔진 신주들이 갖춘 정형적인 요소들(재질, 형태, 크기 등)은 대수나 성별의 차이를 막론하고 모두 동일하다. 신주의 형태와 치수들을 구체적으로 정했다는 사실은 신주라는 의물이 갖는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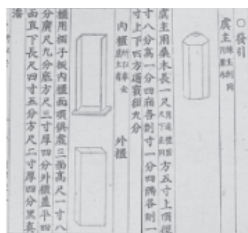
---

19 『國朝喪禮補編』 「發引」 虞主. 국립문화재연구소, 『국역 국조상례보편』(민속원, 2008), 700쪽. 조선왕실의 신주는 주나라의 제도에 따라 치장시 밤나무로 제작되고, 정자(程子)의 주를 따라 시일월신(時日月辰)에 근거하여 크기와 높이를 정하였다. 『가례』에서 연주로 밤나무를 사용하는 까닭에 대해 주나라 사람들이 밤나무로 신주를 만들었으며 근방에서 생산되는 나무 중 가장 단단한 것을 취하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家禮』 卷5, 喪禮 治葬 作主條. 신주에 대한 국내 연구로 최순권(2001)의 연구가 있다.

와 크기가 엄격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종묘의 신주는 유교적 의미를 내포한 ‘완전’한 형상을 갖춘 존재로서 일관된 조형으로 동일하게 제작되었다는 특징을 갖는다. 신주 앞에는 왕의 묘호, 존호, 시호 등을 세로로 썼는데, 문자로써 각각의 개별성을 드러냈다.

정형성은 종묘 제기에도 적용된다(도12). 개개의 제기는 모두 재질, 형태, 크기가 모두 정해져 있고, 제사에 따라 진설되는 개수도 정해져 있었다(표2). 조선왕실 종묘 제기의 제작방식은 기본적으로 중국 예서에 기반하는데, 예를 들어 조선왕실 제기 중 보와 궤는 『소희주현석전의도(紹熙州縣釋奠儀圖)』의 제도를 따라 제작되었고 이는 조선 초부터 대한제국기까지 거의 동일하게 유지되었다(도13).<sup>20</sup>

『석전의』에 이르기를 “보는 구리를 사용하여 주조하였는데, 뚜껑까지 아울러 무게가 13근 2냥이요, 뚜껑까지 전체의 높이는 7촌, 깊이는 2촌, 속의 너비는 8촌 1푼이며, 동체 가운데 직경(中腹)은 1척 1푼이다.”고 하였다. 또 『석전의』에 이르기를 “궤는 뚜껑까지 합하여 무게가 9근이요, 뚜껑까지 전체의 높이는 6촌 7푼, 깊이는 2촌 8푼, 속의 너비는 5촌이요, 동체 가운데 직경(中腹)의 직선 거리[直徑]길이는 7촌 9푼이요, 너비는 5촌 6푼이다.”



도11-신주와 신독(우주의 제도이나 연주와 같음, 연주는 부묘시 신주가 됨), 『국조상례보편』, 발인



도12-종묘 제기, 국립고궁박물관



도13-종묘제기도설, 『종묘의궤』

20 『宗廟儀軌』 『宗廟祭器圖說』.

표2- 조선시대 전례서에 기록된 종묘 제기 제작 제도(무게·치수·재질)

| 제기     |    | 무게와 치수                                                    | 재질 |
|--------|----|-----------------------------------------------------------|----|
| 변      |    | 구경4촌9푼, 높이5촌9푼, 깊이1촌4푼                                    | 竹  |
| 두      |    | 구경4촌9푼, 높이5촌9푼, 깊이1촌4푼                                    | 木  |
| 보      |    | 높이7촌, 깊이 2촌, 속의 너비 8촌1푼, 너비1자1푼                           | 鎗  |
| 궤      |    | 높이6촌7푼, 깊이2촌8푼, 속의 너비 5촌, 너비7촌9푼                          | 鎗  |
| 조      |    | 길이1자8촌, 속의 너비8촌, 높이8촌5푼                                   | 木  |
| 작 / 작점 |    | 높이8촌2푼, 깊이3촌3푼, 입구지름6촌2푼, 너비2촌9푼                          | 鎗  |
| 준      | 희준 | 무게9근10량, 높이6촌1푼, 입지름2촌4푼, 높이8촌2푼, 귀높이2촌1푼, 귀비8푼5리, 깊이3촌7푼 | 鎗  |
|        | 상준 | 무게10근, 높이6촌8푼, 입지름1촌8푼, 귀너비1촌2푼, 귀길이1촌9푼, 깊이4촌9푼          | 鎗  |
|        | 착준 | 무게4근7냥, 높이8촌4푼5리, 구경4촌3푼, 동체지름6촌2푼, 깊이8촌3푼                | 鎗  |
|        | 호준 | 무게4근1량2전, 높이8촌4푼, 입지름4촌5푼, 배지름6촌, 깊이7촌1푼                  | 鎗  |
|        | 대준 | 전체높이8촌1푼, 구경5촌7푼, 동체최대지름6촌1푼, 굽지름3촌8푼, 깊이6촌5푼             | 鎗  |
| 먹      |    | 포1폭                                                       | 布  |

라고 하였다.<sup>21)</sup>

신주나 제기 외에도 신실 의물, 의장, 목가구들도 일정한 재질, 형태, 크기를 갖추어 제작되었다. 물론 전통적인 수작업 방식 과정에서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목재의 수축이나 파손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제작 당시에는 최대한 일정한 규식을 벗어나지 않게 제작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종묘 신실의 신주 및 각종 기물들의 공통된 속성을 정형성이라고 규정할 수 있고, 이는 조선 초부터 대한제국기까지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다. 결국 정형화된 기물은 정형화된 신실 공간을 구축하는 요소들이 되었고, 정형화된 19실의 신실 공간은 규범화된 의례를 반복하기 적합한 의례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었다.

21) 국사편찬위원회, 『세종실록』 「오례」, 조선왕조실록 DB(sillok.history.go.kr/main/main.do, 최종검색일: 2021년 5월 23일) 인용 및 저자 부분 보충.

## 2. 중층(重層)적 구조의 봉안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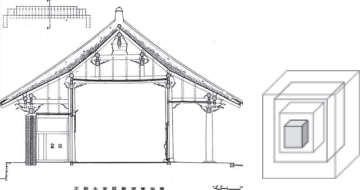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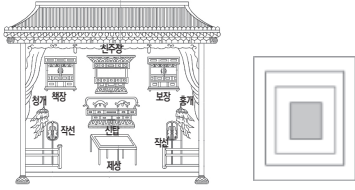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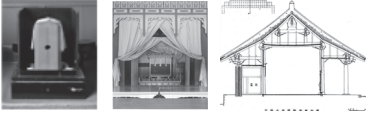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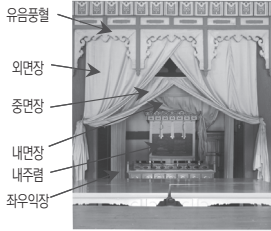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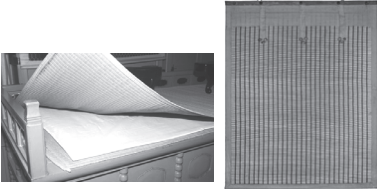
종묘 정전 신실에 배치된 신주 및 기물들의 또 다른 특징은 중층구조를 이룬다는 점이다. 즉 핵심 기물을 중심에 두고 여러 층위의 구조물들을 사용해 핵심을 둘러싸는 방식의 중층적 봉안방식이 신실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었다. 구조물들의 형태에 따라 입체적인 방식과 평면적인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표3).

우선, 입체적인 중층구조는 신주와 어보를 봉안하는 방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표3-1). 종묘 정전의 신실에는 총 48좌에 이르는 신주가 모셔져 있는데 단계적이고 중층적인 구조로 이루어진다. 신주를 둘러싼 입체구조를 큰 단계로부터 순차적으로 내려가면, 종묘 정전 내의 신실, 신실 내의 감실, 감실 내의 신장, 신주장 내의 신독 그리고 마침내 신독 속의 신주에 이르는 순이다(표3-1-2). 이때 신독은 신주를 덮는 상자로 내궐(속상자)과 외궐(겉상자)로 이루어져 있고, 신주를 가장 가깝게 봉안하는 최소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도6, 도11).

어보의 봉안방식도 단계적 중층구조를 따르고 있다(표3-1-3).<sup>22</sup> 즉 어보는 붉은색 운보문 보자기로 싸여지고 자주색 끈 2개로 십자모양으로 묶인 다음 내함(內函)인 보통에 담긴다. 보통의 빈 공간은 흰 솜으로 채워지고 의향 한 봉지도 함께 담긴 후, 뚜껑이 닫혀진 보통은 다시 붉은색 운보문 보자기에 싸여지고 자주색 끈 2개로 십자 모양으로 묶인 다음 외함(外函)인 보록(寶錄)에 담긴다. 다시 보록의 빈 공간이 흰 솜으로 채워지고 의향 한 봉지가 담긴 채 뚜껑이 닫혀진다. 보록은 초주기로 둘러서 봉해진 후, 최종적으로 호갑에 담겼으며, 함부로 열어볼 수 없도록 다시 종이로 봉하는 등 봉과식이 행해졌다. 이처럼 어보는 3개의 함(내함, 외함, 호갑)에 중층적

22 成仁根, 『조선시대 印章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2008), 113쪽.

표3-종묘 신실의 중층구조형 봉안방식

|             | 입체적 중층구조형                                                                                                                                          | 평면적 중층구조형                                                                                                                     |
|-------------|----------------------------------------------------------------------------------------------------------------------------------------------------|-------------------------------------------------------------------------------------------------------------------------------|
| 개<br>념<br>도 |                                                                   |                                              |
|             | 1-1. 종묘 정전 단면도와 개념도                                                                                                                                | 2-1. 종묘일간도(『종묘의례』, 1706년)와 개념도                                                                                                |
| 예<br>시      | <br>신주 ◀ 신독(愼獨) ◀ 신주장(神主塲) ◀ 감실 ◀ 정전                              | <br>유음풍혈<br>외면장<br>중면장<br>내면장<br>내주렴<br>좌우익장 |
|             | 1-2. 정조선황제신주                                                                                                                                       | 2-2. 종묘 신실에 드리워진 면장과 주렴                                                                                                       |
|             | <br>1-3. 정종금보를 담은 보통, 보록, 보통보자기, 보록보자기, 결영자, 숙종7년(1681), 국립고궁박물관 | <br>2-3. 종묘 신탑에 까는 옥석, 신실에 드리우는 간격주렴        |

으로 담겨지고, 수 겹의 보자기에 싸이는 단계로 봉안되었던 것이다.<sup>23</sup> 즉 신주가 신독(외례, 내례)-신장-감실-신실의 순서로 봉안된 것처럼, 어보도 보자기-내함-보자기-외함(보록)-호갑-조방-감실-신실의 중층적 순서로

23 『英祖四尊號上號都監儀軌』; 서준,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어보의 제작과 종류 소고」, 『조선왕실의 御寶』 1권(문화재청, 2010), 700-701쪽. 예를 들어 『영조사혼상호도 감의례』 도식에 나타난 금보와 옥보의 구성품을 보면 대체로 어보, 보통(寶筒), 보록(寶簋), 보자기, 열쇠 및 자물쇠, 묶는 끈, 호갑(護匣) 등으로 구분된다.

봉안되었다. 이처럼 종묘 신실의 신주와 의물들(어보·어책 등)은 ‘소소-소-중-대-대대’의 단계적인 크기로 이루어진 삼차원적 기물들의 가장 안쪽 공간에 봉안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표3-3).

다음으로, 평면적인 중층구조는 면장, 욱석 등의 평면적인 기물들을 중첩시킨 방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표3-2). 예를 들어 신문 밖의 외주렴, 감실 앞의 외면장, 신탕 앞의 중면장, 신주장 앞의 내면장과 내주렴의 순으로 여러 개의 장과 림을 거는데, 각실마다 일정한 재질, 색, 크기로 제작된 장과 림을 신주를 에워싼 동일한 위치에 같은 방식으로 걸었다. (표3-2-2). 현재는 대한제국기의 의례를 따라 황색의 면장들을 걸어놓은 상태이나 조선후기에는 붉은 주림과 면장들을 사용했다. 이에 붉은 빛의 신실 공간은 엄숙하고 경건한 분위기로 연출되었으며, 이 모든 공간적 연출이 향하는 마지막 소실점은 신주이다. 이와 같은 효과적인 공간구조와 기물배치를 통해 신주로 집결되는 공간적 집중도를 높일 수 있고, 동시에 신이 머무는 공간의 신성함을 시각화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sup>24</sup>

### 3. 동일 공간의 연출과 반복

신실 공간의 세 번째 특징은 동일한 구성이 계속 반복된다는 사실이다. 우선 외형적 측면에서 종묘 정전의 신실은 모두 동일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정전의 외부뿐만 아니라 19실로 이루어진 내부공간도 일렬로 길게 배열된다(도1-도3). 정전의 19개 신실들의 봉안공간과 제향공간의

24 중층적 구조의 효과는 중층된 구조의 최후에 위치한 존재의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종묘 공간은 주변에 일체의 번잡스러운 장식들을 배제하고 오로지 신주만을 위한 공간을 창출했다. 중국 태묘 공간과 비교하면 종묘 공간의 중층적 공간구성이 갖는 시각적 효과는 뚜렷하다.

구조 및 크기들은 동일하며, 각 신실 내 의물과 가구들의 구성과 배치방식들도 모두 같다는 점에서 종묘 신실은 한 칸의 신실이 복제하듯이 늘어나 마침내 19실로 이루어진 신실 전체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건축 공간 속에 배치되는 의물이나 가구의 조형이 장기간 동안 큰 변화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은 일견 당연한 듯 여겨진다. 하지만 불변성은 일반적으로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며 오히려 엄격한 통제와 관리 속에서 이루어진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종묘가 한정된 일정 시기 동안 세워진 건축물이라면 외부 공간뿐만 아니라 내부 공간도 동일하게 조성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왜냐하면 일정한 시기동안 동일한 정치권력 속에서 영건되고, 같은 양식의 건축기술이나 공예기술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종묘 신실은 조선시대 내내 꾸준히 조성되었다는 점에서 운영 및 관리체계가 변할 수도 있고, 더불어 조성방식, 장인체제, 제작방식, 제작기술 등도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종묘가 아닌 조선왕실 건축물의 실내 장식물(어좌, 당가, 단집, 보개, 일월오봉도 등)들은 시간적 차이를 두고 지속적으로 조형과 크기 등이 변화하였다. 왕실 의물이나 의장물이 양식변화에 보수적인 성격을 띠기는 하지만, 시대마다 조형적 미감이 반영되고 제작에 참여하는 장인들도 변하므로 시간과 상황의 추이에 따라 조형양식이 변화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종묘 신실은 시간의 흐름과 세대의 변화를 뛰어 넘어 영구한 공간으로 유지시키려는 의도가 강한 편이었다. 물론 모든 의물들이 공산품을 제작하듯 동일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시대, 제작자, 기술, 재료적 여건들에 의해 의물, 가구, 의장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약간 커지거나 작아지는 경우, 칠(漆)의 채도가 짙어지거나 밝아지는 경우, 목가구 다리에 장식이 가해졌다가 사라지는 경우 등 소소한 차이들이 끊임없이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후기 종묘 신실 공간이 크고 작은 차이를 내포하면서도

전체적으로 정형화된 구조가 반복된다는 점에서 종묘 신실을 동일한 공간으로 조성하려는 의지가 강력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신실 공간을 전례에 맞게 조성하려는 조선왕실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료가 『종묘의례』의 종묘일간도이다(도2). 이 그림을 통해 종묘의 신실이 동일하게 반복된다는 원칙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당시 종묘 정전에는 11실의 신실이 존재했는데 신실은 이 도설의 형태를 모두 따르고 있고 이후도 마찬가지이다.<sup>25</sup> 이와 같은 공간구성은 의물과 가구의 배치뿐만 아니라 각 의물의 재질, 형태, 크기, 장식까지 모두 요소에 적용되었다.

이와 같이 동일한 체제의 신실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종묘 신실에 관한 지속적인 봉심(奉審)이라고 할 수 있다. 봉심은 받들어 살핀다는 뜻으로 종묘에 국한된 것이 아닌 조선 관료의 일상적인 업무였다. 종묘 신실 관련 기록에서는 봉심하는 이유에 대해 ‘가지런하지 않는 염려가 없게 하기[可無參差不齊之患]’ 위해서라고 하였다. 예를 들어 영조대에 부묘를 앞두고 “이번 부묘할 때에 사용할 제기와 감실, 신탕, 보장, 책장, 상탁 등의 각종 도구들은 반드시 종묘 각 실에 있는 도구들을 봉심한 뒤에 그 모양대로 조성해야 들쭉날쭉 서로 다를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라는 대목을 통해서 부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종묘 신실의 각양제구(各樣諸具)를 봉심해 크기나 모양을 맞추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sup>26</sup> 새로운 부묘시 종묘 신실 내 기물들을 조성하기 위해 종묘 각 실의 기구들을 봉심하는 방식이 대한제국기까지 시작되었고,

25 『종묘의례』 종묘일간도, 숙종 32(1706).

26 『승정원일기』, 영조 2년(1726) 7월 16일. “又以祔廟都監郎廳 以都提調意啓曰 今此祔廟時祭器及龕室神櫺寶幃冊幃床卓各樣諸具 必須奉審宗廟各室所在諸具 然後依樣造成 可無參差不齊之患……”

이러한 절차와 관례를 기록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sup>27</sup> 또 조정에서는 부묘할 때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종묘 신실의 기물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낡고 파손된 부분을 개수(改修)해 나가면서 신실의 상태를 고르게 유지하고자 노력했다.<sup>28</sup>

또 각 신실의 신장, 신탕, 책장, 보장, 제탁 등의 형태, 크기, 수량 등도 동일하도록 꾸준히 관리되었다. 예를 들어 영조대 신탕의 색을 당주홍으로 모두 개칠(改漆)한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조대 종묘의 신탕을 모두 당주홍(唐朱紅)으로 고쳐 칠하라고 명하였는데 예조참판이 아뢰기를, 처음에는 번주홍(番朱紅)으로 칠했는데 개별적으로 수개할 때마다 당주홍으로 고쳐 칠해 어떤 신탕은 번주홍이고 어떤 신탕은 당주홍이라고 아뢰자 영조는 서로 달라서는 안되니 모두 당주홍으로 고쳐 칠하고 그 뒤로는 정식(定式)으로 삼으라고 명하였다.<sup>29</sup> 이처럼 신탕의 색이 같은 붉은 계열이라도 채도와 명암에서 차이가 날 경우 동일한 색으로 칠하도록 한 것을 알 수 있다.

또 신주의 둘러싼 구성물을 동일하게 만든 사례도 있다. 영조대 선의왕후 부묘를 하루 앞두고 고제를 행하면서 신주를 덮는 수건, 신위 독대(櫺臺)를

27 『승정원일기』, 고종 2년(1865) 11월 6일; 『승정원일기』, 고종 36(1899) 7월 27일.  
“又謹奏 今此祔廟時追上尊號時 龕室神榻冊櫛寶櫛祭器床卓各樣諸具 必須奉審宗廟各室所在諸具 然後可無參差不齊之患 景慕宮祭器仍用與新造者 亦爲奉審後 當爲舉行矣”

28 『일성록』, 정조 10년(1786) 8월 10일. “禮曹啓言 宗廟第一室床前地衣 第二室內面帳 第三室紅蓋納 第六室內面帳 第七室西邊隔簾東道里 第八室西邊柱下地衣 第九室床下西邊地衣 [...] 景慕宮外朱簾絡纓及東道里并色渝破等處修改吉日 令日官推擇 則今八月二十日辰時爲吉云……” 그 외 유사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일성록』, 정조 21년(1797) 8월 11일; 『일성록』, 정조 22년(1798) 2월 10일 기사 등.

29 『영조실록』, 영조 16년(1740) 4월 19일. “命宗廟神榻 皆以唐朱紅改塗 禮曹參判李益炆奏言 各室神榻 初以番朱紅塗之 而每當修改 以唐朱紅改之 故各室神榻 其色不同. 上曰 不可異同 并以唐朱紅改塗 後以爲式” 그 외 석(席), 욕(褥) 등과 관련한 유사한 내용의 기록이 있다. 『영조실록』, 영조 8년(1732) 8월 9일 기사 등.

받치는 자욕(紫褥), 독대욕(櫺臺褥)에 깔 석(席)의 개수가 같지 않다는 점이 확인되어 보고되었다. 즉 10실의 왕후 신위를 덮은 수건인 청저(靑紵)와 남주(藍紉)의 파(帕)가 겹쳐져서 설치된 점, 11실과 12실의 신위 독대(櫺臺)를 받치는 자욕(紫褥)의 안쪽이 흰색이므로 각 실의 홍색(紅色)과 일치하지 않다는 점, 12실의 독대욕에 깔 석(席)의 개수가 다른 실과 일치하지 않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다른 실의 상황과 동일하게 해야 한다는 종묘제조와 예조판서의 보고를 들은 영조는 개조를 허락했다. 이와 같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종묘 신실 내 기물들의 수량, 크기, 형식 등을 비교하여 모든 신실의 상황을 가능하게 동일하게 유지하려한 노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형태를 같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신실 공간은 서로 동일한 외형을 갖추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존재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나아가 조상신이 머무르는 공간을 살펴 들쭉날쭉한 흠결(欠缺)을 없애고 정결하게 하는 것이 곧 성효(誠孝)의 자세라고 여겼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관리방식은 숭은전(崇恩殿)에 모셔진 원종의 위패를 종묘에 부묘할 때에도 적용되었다. 원래 숭은전은 태조와 세조의 어진을 봉안하는 남별전으로 운영되다가, 인조 10년(1632) 인조의 생부인 원종의 영정과 위패를 봉안하는 건물로 사용되었고 병자호란 뒤인 인조 13년에 원종의 위패를 종묘에 부묘하게 되었다.<sup>30</sup> 이때 숭은전에서 사용했던 목가구의 높이를 종묘의 제도에 맞게 수리하고 제기와 함께 그대로 옮겨 사용하되 종묘와 숭은전의 물품 중 형식이 동일하지 않은 것은 새롭게 만들기도 하였다. 우선 숭은전에서 사용하던 목가구들과 제기들을 그대로 종묘로 옮길 수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태묘의 감실, 신탐, 책장, 보장, 제탁을 봉심하**

30 『승정원일기』, 인조 13(1635) 1월 30일. “..... 今我元宗大王影幀 則壬申年立別廟時 始奉安於崇恩殿 今當附廟之際 影幀不可竝安於太廟.....”

여 그 길이와 너비를 켜 뒤에 숭은전에 나아가 피차간의 척수를 비교했더니 대체로 서로 같았다'고 아뢰면서 '분촌의 차이는 있었으나 그다지 차이가 많지는 않은 것은 숭은전을 배설할 때 그 제도를 한결같이 태묘의 모양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sup>31</sup> 다만 숭은전의 책장과 보장에 다리를 달아 태묘의 책장과 보장보다 높아졌으니 다리부분을 조금 낮춰야 한다고 고하는 것을 통해 숭은전에서 사용했던 책장과 보장의 높이를 다른 신실의 책장과 보장의 높이와 동일하게 맞추고자 한 것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제기 역시 모두 전에 쓰던 것을 태묘로 옮겨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겠 습니다.'라고 하여 이미 숭은전의 제기도 종묘 제기와 동일하게 조성했다는 것을 보여준다.<sup>32</sup> 제기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었으나, 책장과 보장은 운족(雲足)이라는 다리 부분을 줄여 서로 높이를 맞추었고, 홍초장(紅綃帳)과 주렴은 새롭게 제작해야 했다. 왜냐하면 태묘의 감실 주렴은 거북문(龜文)이 없고 남주로 테를 둘렀으나 숭은전은 귀갑문이 있고 초록단(草綠緞)으로 테를 둘러서 제도가 같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에 인조로부터 숭은전의 홍초장과 주렴은 종묘의 예법대로 다시 만들기로 재가받았다.<sup>33</sup> 즉 부묘를 염두에 둔 왕들과 부묘를 하지 못한 원종의 의장물에는 이미 차이가 존재했고, 책장과 보장도 태묘의 모양을 따랐다고 하더라도 운족을 다는 등 이형(異形)이 발생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1 『승정원일기』, 인조13(1635) 1월 30일. “又以祔廟都監言啓曰 臣等詣太廟 奉審龕室·神榻·冊寶·祭卓 量其長短廣狹 然後又詣崇恩殿 較量彼此尺數 則大概相同 雖或有分寸差異 而不甚相遠 蓋當初崇恩殿排設之制 一遵太廟模樣故也 但太廟三字缺冊寶·其下着地 不爲設足 而崇恩殿有雲足頗高 故高於太廟櫺幾三寸許 必依太廟櫺 稍低其雲足 然後高下方爲適中……”

32 『승정원일기』, 인조 13(1635) 1월 30일. “…… 祭器亦皆以前件, 移用於太廟爲當……”

33 『승정원일기』, 인조 13(1635) 1월 30일. “…… 此外應爲新造者 紅綃帳四件 朱簾二件而已 且太廟龕室朱簾 無龜文 緣以藍紬 崇恩殿則有龜文 緣以草綠段 制度不同 似爲未安 臣等之意 欲依太廟例改造 而不敢擅便 伏俟睿裁……”

며칠 뒤 부묘도감에서는 숭은전의 보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보고를 하였다. 즉 보장과 책장의 너비가 다르다는 것으로, 책장의 경우 숭은전이 태묘보다 3치 3푼이 더 길고 보장은 태묘보다 1자 4치 8푼이 짧다는 사실이 문제가 되었다.<sup>34</sup> 숭은전의 간각(間閣)은 넓어서 감실을 중앙에 두고 좌우로 책장과 보장을 배치해도 남는 공간이 있는 반면, 태묘는 간각이 좁아서 책장과 보장을 감실 양쪽에 두면 공간도 좁을 뿐만 아니라 신주장인 감실을 중앙에 두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너무도 온당치 못하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오른쪽 보장의 너비를 줄여서 새롭게 다시 만들어 감실을 중앙에 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아뢰는 내용이 확인된다. 이후 원문이 사라져서 그 결론을 알 수 없지만, 위 내용을 통해 감실을 신실의 가운데 두는 일을 중요하게 여겼고 이를 위해서는 책장과 보장의 너비를 제작단계부터 고려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더불어 다른 신실과의 관계도 고려하여 책장과 보장의 높이도 일관되게 맞추려고 노력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숭은전은 부묘를 옆두에 두고 책장과 보장을 제작한 사례가 아니라 부묘하지 못한 원종의 위패를 인조대에 뒤늦게 종묘로 모시려한 이례적인 경우로, 이때 종묘 신실과 동일하게 조성하지 못한 목가구와 주렴을 어떻게 개보수하고자 했는지 보여주는 실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앞서 살펴본 ‘정형성’을 유지시키려고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관리와 노력을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정형성이

34 『승정원일기』, 인조 13(1635) 2월 3일. “徐景雨以祔廟都監言啓曰, 臣等詣太廟 崇恩殿 奉審龕四五字缺寶櫨較量 彼此尺數 則大概相同 (字缺)右邊冊櫨 雲足頗高 與龕室上(字缺) 請稍低其雲足矣. 今者更爲商確 (字缺)間閣廣闊 故龕室當中 左右冊寶櫨(字缺)有餘地 太廟 則間閣狹窄 故兩櫨挾龕無餘地. 而崇恩殿冊櫨之廣 加於太廟櫨三寸三分 寶櫨則減於太廟櫨 一尺四寸八分 若推移排設 則龕室似不得當中 極爲未安. 臣等之意 右邊寶櫨之廣 減其寸數 改造新件以用 則龕室當中 少無未安之意. 且左邊寶櫨 曾爲四層 故每一層三四字缺各二件 而二層則空焉……”

하나의 의물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에 비치된 기물들을 하나의 세트처럼 통합적으로 인식하고, 한번 봉심할 때 신실의 곳곳을 모두 점검하고, 신실마다 개수가 필요한 부분들을 개별적으로 파악해 개수하려고 노력하는 등 정성을 다해 신실을 관리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 애초에 종묘 신실에 배치하려고 제작되지 않아 변형된 형태로 제작된 목가구를 종묘에 옮겨야 할 경우, 최대한 종묘의 정형성에 맞추고자 보수하려한 사실도 확인된다. 결국 이러한 노력들은 애초부터 동일하게 조성해 왔던 종묘 신실을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공간의 항상성을 구조화하고 영원한 권위를 시각화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 IV. 기물들의 상호관계와 성격

위에서 살펴본 바대로 종묘의 신주 및 각종 기물들은 정형성을 갖추어 제작되었고 중층적 구조 속에 봉안되어 최종적으로 신실이란 동일한 공간이 연출될 수 있었다. 한정된 공간 속에서 신주와 각 기물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고 조합되어 신실이란 공간속에서 동일하게 구현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유기적인 상호관계로 인해, 만약 한 기물에 작은 변화가 발생하면 그 변화의 파장이 연쇄적으로 관련 기물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즉, 정형성과 중층구조를 통해 하나의 동일한 공간을 연출하는 방식이 종묘 신실 공간의 공통적 속성이었다. 동시에 그 밀접한 관계로 인하여 하나의 요소가 변화하면 다른 요소들도 연동되어 변화할 수밖에 없는 측면도 필연적으로 공존할 수 밖에 없었다. 본 장에서는 신실 내 신주, 의물, 의장, 제기, 목가구들의 상호관계를 살피기 위해 각 실마다 개별적인

특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실의 기물들이 어떻게 연동되어 변화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 1. 신주 수 차이와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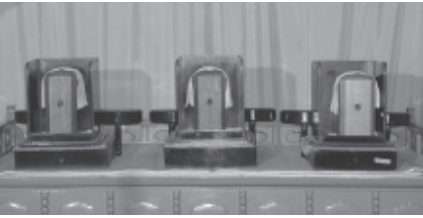
신주는 신실 내 다양한 기물과의 밀접한 상호관계 놓여있다. 기존에는 신주는 신주대로 논의되고 다른 의물, 의장물, 목가구, 제기들도 별도의 주제로써 각기 연구되었으나 이들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신주 수의 차이는 다른 기물들 특히 목가구와 제기에 영향을 미쳤다.

종묘 신실 당 신주는 왕과 왕후의 신주 2위가 일반적이지만, 계비를 맞이한 경우에는 3위인 경우도 있었고 최대 4위에 이르기도 하였다(도7, 도14). 예를 신주 2위가 모셔진 경우가 총 19대 중에서 10대(태종, 세종, 세조, 효종, 현종, 정조, 순조, 문조, 철종, 고종)이고, 왕과 왕후, 총 3위의 신주가 모셔진 경우가 7대(태조, 성종, 선조, 인조, 영조, 헌종, 순종)이며, 총 4위의 신주가 모셔진 경우가 2대(중종, 숙종)이다(표4). 신주 수의 변화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물은 신주 아래에 까는 섬유들로 신주의 수에 맞추어 황화문석의 길이도 길어진다. 조선후기에 제작된 황화문석은 신주 수의 차이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도15).

이에 비해 정전 공간의 건축구조상 신실의 너비와 크기는 신주수의 차이와 무관하게 지어져 모든 실들의 크기는 거의 비슷했다. 또 신주는 신실의 크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작으므로 신실에 모셔야하는 조상신이 4위라고 하더라도 4개의 신주가 차지하는 면적이 크게 증가하는 것도 아니다. 이처럼 신실 전체에서 신주의 개수가 1-2개 증가하는 것을 큰 변화라 할 수 없지만, 신주를 모시는 신장과 신탕의 폭은 2개의 신주를

표4-종묘 정전 신위봉안도

| 구분   | 종묘신실  |      |      |      |      |      |      |      |      |      |      |      |       |       |       |       |       |       |       |
|------|-------|------|------|------|------|------|------|------|------|------|------|------|-------|-------|-------|-------|-------|-------|-------|
| 실    | 1실    | 2실   | 3실   | 4실   | 5실   | 6실   | 7실   | 8실   | 9실   | 10실  | 11실  | 12실  | 13실   | 14실   | 15실   | 16실   | 17실   | 18실   | 19실   |
| 왕    | 태조고황제 | 태종대왕 | 세종대왕 | 세조대왕 | 성종대왕 | 중종대왕 | 선조대왕 | 인조대왕 | 효종대왕 | 현종대왕 | 숙종대왕 | 영조대왕 | 정조선황제 | 순조숙황제 | 문조익황제 | 헌종성황제 | 철종장황제 | 고종태황제 | 순종효황제 |
| 왕비신위 | 2位    | 1位   | 1位   | 1位   | 2位   | 3位   | 2位   | 2位   | 1位   | 1位   | 3位   | 2位   | 1位    | 1位    | 1位    | 2位    | 1位    | 1位    | 2位    |
| 신위합계 | 3位    | 2位   | 2位   | 2位   | 3位   | 4位   | 3位   | 3位   | 2位   | 2位   | 4位   | 3位   | 2位    | 2位    | 2位    | 3位    | 2位    | 2位    | 3位    |



도14- 정전 신주가 3위인 경우



도15- 위로부터 정전  
10실(신주2위),  
12실(신주3위),  
11실(신주4위)  
황화문석, 신주수에 따라  
황화문석의 너비도 달라짐.



도16- 정전 신장,  
『철종부묘도감의궤』

기준으로 제작되었으므로 4개의 신주를 올리기에는 아무래도 좁아지는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동시에 늘어난 신주의 수 만큼 신장의 너비를 유동적으로 변화시킨다면 신실들의 가지런한 구성을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장의 너비가 확장되면서 책장과 보장이 좌우로 밀려나고 결국 감실에 신장, 책장, 보장을 나란히 놓기 어려워지는 되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 이에 감실 공간의 폭도 제한되었으므로 신주의 수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신장의 너비를 크게 확대시키는 방법을 가급적 자제했던 것으로

표5-종묘 정전 신주수별 목가구의 크기 비교(단위: mm)

|            | 신위수 | 신주장(가로) | 제상(가로) | 준소상(가로) |
|------------|-----|---------|--------|---------|
| 1실(태조/3위)  | 3   | 1,970   | 1,360  | 1,690   |
| 2실(태종/2위)  | 2   | 1,980   | 1,360  | 1,695   |
| 3실(세종/2위)  | 2   | 1,950   | 1,360  | 1,690   |
| 4실(세조/2위)  | 2   | 1,980   | 1,360  | 1,695   |
| 5실(성종/3위)  | 3   | 1,970   | 1,357  | 1,690   |
| 6실(중종/4위)  | 4   | 2,230   | 1,752  | 1,690   |
| 7실(선조/3위)  | 3   | 1,820   | 1,360  | 1,690   |
| 8실(인조/3위)  | 3   | 1,870   | 1,360  | 1,685   |
| 9실(효종/2위)  | 2   | 1,915   | 1,360  | 1,685   |
| 10실(현종/2위) | 2   | 1,915   | 1,360  | 1,685   |
| 11실(숙종/4위) | 4   | 2,180   | 1,755  | 1,685   |
| 12실(영조/3위) | 3   | 1,765   | 1,360  | 1,680   |
| 13실(정조/2위) | 2   | 1,675   | 1,360  | 1,680   |
| 14실(순조/2위) | 2   | 1,680   | 1,360  | 1,680   |
| 15실(문조/2위) | 2   | 1,670   | 1,360  | 1,680   |
| 16실(현종/3위) | 3   | 1,800   | 1,360  | 1,675   |
| 17실(철종/2위) | 2   | 1,690   | 1,360  | 1,680   |
| 18실(고종/2위) | 2   | 1,860   | 1,360  | 1,680   |
| 19실(순종/3위) |     | 1,775   | 1,360  | 1,680   |

보인다.

현재 종묘 정전 1실에서 19실까지 현전하는 총 19좌의 신장 가로, 세로, 높이를 신주의 수와 관련지어 분석한 결과 신주의 수와 신장 가로의 폭이 대체적으로 비례관계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4, 표5, 참고표1).<sup>35</sup> 2위를 봉안한 신장의 평균 가로폭이 1,664mm인데 비해 3위를

35 일견, 신위가 늘어나면서 신주장의 크기도 커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므로 치수까지 비교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공간은 최종적으로 크기와 비례로 결정되기 때문에 이를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신주의 수만 가변성에 의해 신주장 치수가 제어되지 않고 자유롭게 변경된다면 현실에서 목도하는 종묘 신실공간의 조화는 이뤄지지 못했을 것이다. 즉 신주라는 변수가

봉안한 신장의 평균 가로폭은 1,852mm로 확인되어 2위보다는 3위일 때 더 많은 신위를 봉안하기 위해 신장 너비가 넓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는 2위와 3위의 신주의 차이는 신장의 너비에 크게 반영되지 않았다. 하지만 4위는 명확하게 다른 신장들보다 너비가 넓은데, 중종실의 신장 너비는 2,230mm이고 숙종실의 신장 너비는 2,180mm에 이른다. 이처럼 4위의 신주를 모신 신실의 신장은 2위나 3위의 신주를 모신 신실과 비교하여 확실히 넓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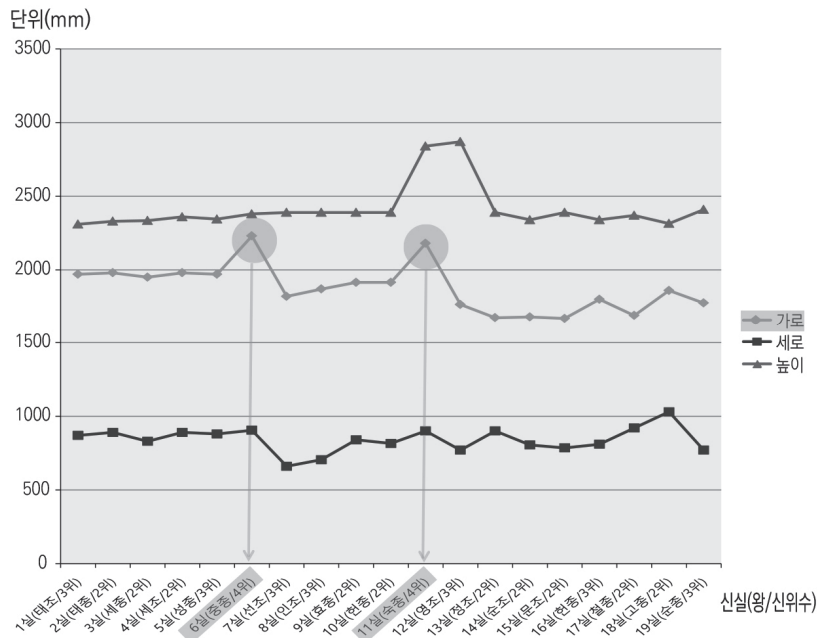
이는 제상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위 혹은 3위의 신주를 모신 신실의 경우 제상 1개의 너비는 평균 1,360mm 내외이지만 4위의 신주를 모신 중종실과 숙종실은 각각 1,752mm와 1,755mm였다(표5). 제상을 2개씩 연폭으로 2줄을 이어 붙이므로 실제 제상을 차렸을 때 2위나 3위의 신주를 모신 제상의 너비는 2,720mm인 것에 비해 4위를 모신 중종과 숙종실은 3,550mm에 이르기 때문에 큰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다.<sup>36</sup> 제상 너비에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신주의 수와 일부 제기의 수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신주의 수가 증가할 때 변, 두, 등, 형, 조의 개수 등은 변화하지 않으나 작, 보, 궤의 개수는 함께 증가한다. 신주 1좌가 증가할 때마다 작은 3개(초헌, 아헌, 종헌용)씩, 보는 2개씩, 궤도 2개씩 증가한다. 따라서 신주의 차이는 제상의 너비를 불가피하게 변화시킬 수밖에 없다. 그나마 3위일 때는 제기를 촘촘히 당겨놓아 가능했으나 4위일 때에는

---

발생하더라도 이를 제어하는 기제로 인해 종묘 공간은 통일성 있는 공간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 비결을 치수의 범위에서 재확인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범위를 이탈하는 사례(중종, 숙종)는 더욱 의미있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36 6실과 11실의 제상 크기가 다른 신실의 제상에 비해 크다는 사실은 기존의 보고서에서도 언급된 부분이다. 하지만 보수 과정에서 4위의 신주로 인해 제상이 크다는 점만 언급되었을 뿐 제기의 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 외피적인 크기의 차이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제향 거행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요인에 의해 제상이 커질 수밖에 없었는지 살필 필요가 있다.

표6-종묘 신실별 신주장의 크기 비교



제기진설의 간격을 좁히는 것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므로 제상의 너비를 넓힐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때로는 2위의 신주를 위한 제상에 3위나 4위에 이르는 신주 제향을 위한 제기를 진설하게 되면 제기들을 진설할 장소가 협소해져서 의식이 간략해지거나 혹은 정해진 위치에 제기를 진설하지 못하는 비례(非禮)가 발생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정조대 모혈반의 경우 3·4위의 제상을 진설할 때 다른 제기들에게 밀려나 제기를 놓아둘 곳이 없자 대궐과 형궐을 두는 줄을 벌려서 설치했다가 제사 중간에 모혈반을 물리면서 제상의 중간이 비어버리게 되는 일도 발생하였다. 이처럼 신실의 신주가 3·4위가 되었을 때 제상의 너비가 필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던 이유는 첫째, 신주의 수에 따라 일부 제기들(작, 보, 궤)이 비례해서 늘어나기 때문이었고 둘째,

신주의 제기들의 원래 위치가 흐트러져 진설이 정돈되지 못하여 정성을 다하지 못함을 고치기 위해서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신주수의 차이는 신실의 황화문석이나 목가구에 변화를 주었고, 특히 4위에 이르는 신주 수는 신주장의 너비에 뚜렷한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신주의 수와 밀접한 제기인 작, 보, 례가 진설되는 제상의 면적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2. 한정된 공간 속 늘어난 의물

종묘 신실에 봉안에 중요한 의물로 신주와 더불어 어책과 어보가 있다. 보장과 책장은 『종묘영녕전책보록』을 기준으로 봤을 때, 당시 18실에 이르는 신실들에 배치된 의물들 중 어보는 총 258건(금보 130건, 옥보 128건), 인은 총 19건(옥인12건, 금인 3건, 은인 2건, 동인 2건), 교명 4건(교서23건, 유서 1건), 책문 242건(옥책128건, 죽책30건, 금책1건), 국조보감 37건에



도17-책장,  
『철종부묘도감악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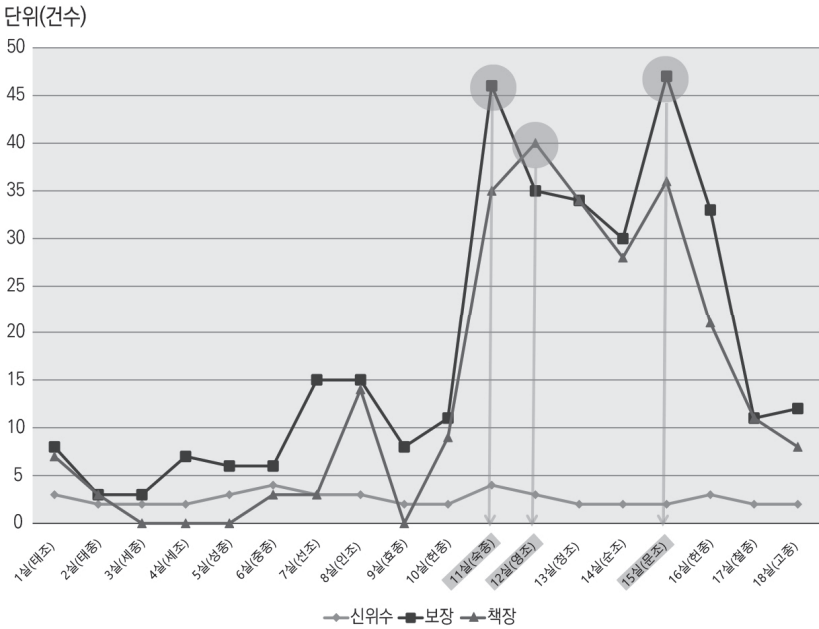


도18-정전 11실 동장, 동가장, 서장, 서가장,  
『종묘각실책보봉안도』

이를 정도로 그 수가 많다.<sup>37</sup> 이처럼 많은 수에 이르는 어보, 인, 교명, 책문, 국조보감 등을 종묘 신실마다 각각 1좌씩 배치된 보장과 책장에 나누어 봉안해야 했다(도2, 도17). 신실별 책장과 보장에 봉안하는 의물의 수는 앞서 살펴본 신주수와 비례하는 것은 아니었다. 각 실별 의물수를 합산한 결과 가장 많은 의물이 봉안된 신실은 숙종실, 영조실, 문조실이다(표7).

일반적으로 각 실의 어책과 어보의 수와 부피를 책장과 보장의 공간에 봉안되기 알맞게 마련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일부 왕의 경우는 어책과 어보의 수가 많아 책장과 보장을 늘려 책가장과 보가장을 추가적으로 마련하는 경우도 있었다(도18). 또는 후대에 존호를 올릴 경우 책장과 보장

표7-종묘 신실별 보장, 책장 내 의물 수 비교



37 『宗廟永寧殿冊寶錄』(K2-2190).

의 선반에 맞지 않을 만큼 크게 제작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예를 들어 옥책의 크기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정조 8년 옥책을 봉안할 때 옥책궤의 모양이 약간 높아서 장 안에 들어가지 못하자 부득이하게 크기가 맞는 곳을 찾아 층을 바꿔 봉안했다.<sup>38</sup> 원래 장 안에 책보를 봉안할 때에 모두 연조(年條)에 따라 차례를 정하여 봉안하는데, 정조대 옥책궤의 높이가 높아 기존의 옥책궤와 차례를 바꾸게 되어 왕의 마음이 매우 편치 않다고 대목이 있다. 이 시기 옥책궤가 유달리 높았던 이유를 살펴보면 책문을 지을 때 구절 수가 전에 비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옥책의 편수(編數)가 자연히 다소 많아지게 되고 옥책궤를 만드는 것도 그에 따라 높고 커지게 되었다. 이에 책문이 다소 많다는 점을 전달하여 줄였으나 당시 당상이 서로 체차되는 과정에서 미처 옥책궤까지 그 사실이 전달되지 못했다. 그래서 정조는 의궤에 실린 책문을 상세히 고찰하여 전에 지은 구절수를 본받아서 옥책궤를 만들 때 책보를 보관할 장의 높이와 넓이를 봉심한 뒤 견양을 내서 만들도록 하고, 이 하교를 의궤와 등록에 기재하도록 했다. 이처럼 의물을 제작할 때는 그 의물이 보관될 공간의 크기를 감안하여 제작되어야 했다. 지나치게 글자 수가 많으면 옥책의 크기가 커지게 되는 결과를 야기하고, 결국 연조를 역행해 그 위치를 바꿔야 하는 결례까지도 벌어질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앞에서 살펴본 중층구조가 정립되면서, 선대에 미처 형식적으로 갖추지 못한 보갑과 보록

38 『일성록』 정조 8년(1784) 9월 13일. “…… 予謂戶判曰 日吉辰良 大禮順成 誠爲萬幸 而俄者玉冊奉安時奉審 則玉冊橫體樣稍高 以致櫥內不容之境 勢不得已 隨其相適 推移奉安 故與前日奉安冊橫換次奉安 蓋櫥內冊寶奉安 皆以年條定第次奉安 而今番未免易次 心甚不安矣. 鄭一祥曰 極爲惶悚矣. 予曰 文衡之撰出冊文時 不計繁約 意在揄揚 句數比前太多 故玉冊編數 自然稍加 橫子之造成 亦隨以高大 其時都提舉金領府 以冊文之稍多 陳白減刪 而猶不慮及於橫子 此則其間堂上 互相遞易之致 文字自有多寡之體段 此後則不必務從繁多 詳考儀軌所載 做前句數撰出 而橫子造出時 堂上與 廟司 奉審寶冊櫥之高低長廣後 出見樣造出也 此筵教 政院錄送都監. 載之儀軌及臚錄……”

등을 새로 갖추어 넣고자 할 때에도 가구의 내부공간이 부족해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다.<sup>39</sup>

종묘 정전 신실제도는 전례서나 의궤에 규정되어 있어 동일한 공간들이 복제된 듯 동일하게 연출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바대로 각 실마다 각기 다른 개별적인 상황들이 존재하였고 이는 신실 구성의 일부가 변화하면 연쇄적으로 다른 기물들도 변화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기도 하였다. 신실 공간은 시대마다 발생하는 여러 변수들에 직면할때는 불가피하게 이를 수용해왔고, 그 고민의 결과들을 신실 내 기물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다양한 변수들의 발생과 수렴의 과정에도 불구하고 종묘 신실 제도에 대한 끊임없는 관리과 봉심으로 인해 종묘 정전 신실은 시대를 통관하는 공통적 속성들을 지속할 수 있다.

## V. 맺음말

---

본 연구에서는 조선후기의 종묘 정전 신실 공간의 조성방식과 신실에 봉안된 신주 및 각종 기물들과의 상호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 신실 공간의 구조를 용도에 따라 봉안공간과 제향공간으로 구분하고 공간별 성격을 추출한 결과, 신실이 공간의 용도에 맞춰 복합적 구조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즉 봉안공간이 신주라는 핵심에 집중되어 있는 구조라면, 제향공간은 다양한 제물과 제기들이 넓게 진설되고 여러 명의 참여자들이 흩어져 각각의 위치에 도열하는 방식의 구조로

---

39 『숙종실록』 숙종 31년(1705) 윤4월 12일. “…… 近年定宗 端宗祔廟時 始具寶匣 寶盥 今此各室 追具寶匣 事體當然 而若復仍具寶盥 則或至十五六 櫛狹難容矣……”

구분되었다. 또 신실은 주림과 면장을 통해 봉안과 제향이란 두 개의 공간으로 나뉘기도 하고 하나로 합쳐지기도 하였다. 즉 제향을 올리지 않을 때에는 양 공간 사이를 면장과 주림으로 겹겹이 드리워 구분하고 신실을 가렸다. 하지만 제향이 시작되며 면장과 주림을 걷어 올림으로써 두 공간을 통하게 하여 조상과 후손이 만나는 새로운 공간이 펼쳐지게 하였다. 신실 공간이 봉안과 제향이란 두 용도로 운영되었다는 사실은 단지 용도의 차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 공간의 용도에 맞는 신주, 의물, 의장, 제기, 목가구들을 구분하여 배치함으로써 실현된다. 즉 신실이란 공간을 사용하는 목적과 시기에 따라 여러 장치들을 사용하여 구분하고 연결함으로써 동일한 공간이 엄격한 절차 속에서 효과적으로 연출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어서 신실 내부에 조성된 각종 기물의 종류 및 조성방식을 살핀 결과 세 가지 공통된 속성, 즉 정형성, 중층적 봉안형식, 동일한 공간의 연출과 반복이라는 속성이 추출되었다. 기물에 내재된 속성들은 곧 신실공간의 특징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 그리고 신실 내 공예품들의 밀접한 상호관계로 인해 신주와 의물의 작은 변화가 연쇄적으로 주변의 기물들에게 미치는 파장을 여러 사례를 통해 확인했다. 이를 통해 신주, 의물, 제기, 가구 등이 서로 별개의 존재들이 아니라 유기적인 상호관계 놓여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당시 발생하는 다양한 변수들을 수용하면서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들도 읽을 수 있었다. 전례를 준수하는 종묘 신실 운영 원칙에 따르면서 여러 불가피한 변수들이 발생하면 최대한 차이를 줄이고자 하는 방향으로 신실이 운영되었고, 이를 통해 종묘 정전 신실의 전체적인 통합과 조화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여겨진다.

이 외 조선후기 종묘제도의 근원은 조선전기에 바탕을 두었으나 구체적인 자료 수집이 필요한 단계이므로 본고에서는 충분히 논의하지 못했다.

더불어 황제국의 의장 제도를 수용한 대한제국기의 종묘 신실의 변화요소를 파악하여 조선후기와 비교한다면, 이 공간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관한 내용들을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 참고문헌

### 1. 1차 자료

『家禮』, 『家禮儀節』, 『國朝喪禮補編』, 『紹熙州縣釋奠儀圖』, 『承政院日記』, 『日省錄』, 『朝鮮王朝實錄』, 『宗廟永寧殿冊寶錄』, 『宗廟儀軌』, 『宗廟冊寶目錄』, 『宗廟各室冊寶奉安圖』, 『宗廟膳錄書』, 『宗廟永寧殿冊寶錄』, 『哲宗大王祔廟都監儀軌』, 『冊寶錄』, 『春官通考』.

### 2. 단행본

국립고궁박물관, 『왕의 상징 어보 御寶』. 2012.

\_\_\_\_\_, 『宗廟』. 2014.

국립문화재연구소, 『국역 국조상례보편』. 민속원, 2008.

문화재청 종묘관리소, 『종묘 신주장 보수 보고서』. 2012.

\_\_\_\_\_, 『종묘 정전 및 영녕전 신실 면장 방범처리 교체사업 보고서』.  
2009.

\_\_\_\_\_, 『종묘 정전 제상 보수 사업 보고서』. 2016.

\_\_\_\_\_, 『종묘 제상 및 준상 수리보고서』. 2017

\_\_\_\_\_, 『종묘 황화문석 및 황방주옥 교체 사업보고서』. 2014.

이범직·최순권 역주, 『역주 매사문』. 민속원, 2017.

장경희, 『조선 왕실의 궁릉 의물』. 민속원, 2013.

장안칠기, 『종묘 보장·책장 보수 보고서』. 문화재청 종묘관리소, 2011.

주희 저·임민혁 역, 『주자가례』 「作主」. 예문서원, 1999.

한복산업마케팅연구소, 『종묘 정전 영녕전 신림 주립(격림) 결과보고서』. 문화재청 종묘관리소, 2011.

『宗廟 正殿 實測調査報告書』.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1989.

『종묘제례문물』. 궁중유물전시관, 2004.

### 3. 논문

강제훈, 「조선 초기 王室祖上儀禮의 유교적 정비」. 『한국사학보』 66, 2017, 121-166쪽.

구혜인, 『조선시대 왕실 제기(祭器)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9.

박종민, 「조선시대 유교식 감실(龕室)의 수용과 변용」. 『문화재』 44, 국립문화재연구

- 구소, 55-69쪽.
- 박희용, 「宮闕 正殿 唐家の 形式과 空間構造」, 『서울학연구』 33, 2008, 1-40쪽.
- 박희용·김중기·최종철·홍대형, 「朝鮮時代 宮闕 正殿 唐家の 형식과 역할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2, 2006, 167-174쪽.
- 서준,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어보의 제작과 종류 소고」, 『조선왕실의 御寶』, 문화재청, 2010.
- 송기호, 「제사와 신주」, 『대한토목학회지』 56(1), 2008, 75-81쪽.
- 신진혜, 「임진전쟁기 종묘의 소실과 재건 과정 연구」, 『역사학보』 240, 2018, 377-416쪽.
- 이강근, 「朝鮮王朝의 神殿 宗廟」, 『미술사학연구(구 고고미술)』, 1997, 49-95쪽.
- 이귀영, 「종묘제례의 제기와 제수의 진설 원리」, 『미술사학』 27, 2013, 409-448쪽.
- 이육, 「제사의 종교적 의미에 대한 고찰」, 『유교사상문화연구』 16, 79-106쪽.
- 이현진, 「조선시대 종묘의 부묘의례와 성격」, 『서울학연구』 43, 2011, 55-102쪽.
- \_\_\_\_\_, 「대한제국의 선포와 종묘 제도의 변화: 七廟의 구성과 황제 추존, 신주 改題를 중심으로」, 『한국사상사학』 40권, 2012, 499-538쪽.
- 임태승, 「'아(亞)형(形)의 정면존중주의(正面尊重主義): 유가미학의 원형(原型) 패러다임 분석」, 『儒敎文化研究』 18, 2011, 133-153쪽.
- 임현성, 「건축적 공간 체험을 통한 장소성 구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林炫佑, 「朝鮮時代 御寶 研究: 舊宗廟所藏品을 中心으로」,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장경희, 「조선후기 王室祭器 鑄成 鑄器匠 연구」, 『한국공예논총』 11, 2008, 1-24쪽.
- \_\_\_\_\_, 「正祖代 景慕宮의 왕실공예품 연구: 종묘의 儀仗·儀物·祭器와 비교하여」, 『한국공예논총』 12, 2009, 217-237쪽.
- \_\_\_\_\_, 「조선후기 종묘 주립 연구」, 『조형디자인연구』 14, 2011, 27-45쪽.
- \_\_\_\_\_, 「조선후기 종묘 신실 내 목공예품의 종류와 제작실태: 『부묘도감의례』를 중심으로」, 『동방학』 40, 2019, 237-267쪽.
- 전경배·한규영, 「종교건축공간의 보편적 위계성」,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8권 제9호, 1992, 33-41쪽.
- 조재모, 「고종대 경복궁의 중건과 궁궐 건축형식의 정형성」, 『서울학연구』 29, 2007, 31-56쪽.

- 최순권, 「신주고(神主考)」, 『생활문물연구』 2호, 2001, 61-94쪽.
- 최영숙, 「조선시대 목조감실(木造龕室) 조형 연구: 18세기 이후 조성된 왕실조성 감실을 중심으로」, 『조형디자인연구』 16, 2013, 95-119쪽.
- 최웅조·조정식, 「宗廟正殿 내·외부공간의 儀禮節次 고찰」,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제20권 제1호, 2000, 301-304쪽.
- 카지카와아키히로·전봉희, 「한국과 중국의 중요건축제도에 대한 비교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16(8), 2000, 119-126쪽.
- 한재수, 「중요건축공간의 미학적 체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계획계』 4(2), 1984, 79-84쪽.
- 허수민, 「조선왕실 보록(寶鑑)의 제작과 율삭형(栗削形) 기형 연구」, 『무형유산』 7, 2019, 195-220쪽.

#### 4. 사이트

- 국사편찬위원회, 『세종실록』 「오례」, 조선왕조실록 DB([hsillok.history.go.kr/main/main.do](http://hsillok.history.go.kr/main/main.do), 최종검색일: 2021년 5월 23일).

참고표-종묘 정전 1살-19살 신장 크기비교(문화재청 종묘관리소, 『종묘 제상 및 준상 수리보고서』(2017))

| 일   | 왕     | 신위수 | 이미지                                                                                  | 가로   | 세로  | 높이   | 실   | 왕     | 신위수 | 이미지                                                                               | 가로   | 세로   | 높이   |
|-----|-------|-----|--------------------------------------------------------------------------------------|------|-----|------|-----|-------|-----|-----------------------------------------------------------------------------------|------|------|------|
| 1일  | 태조고황제 | 3위  |   | 1970 | 870 | 2310 | 11일 | 숙종대왕  | 4위  |  | 2180 | 900  | 2840 |
| 2일  | 태종대왕  | 2위  |   | 1980 | 890 | 2330 | 12일 | 영조대왕  | 3위  |  | 1765 | 770  | 2870 |
| 3일  | 세종대왕  | 2위  |   | 1950 | 830 | 2335 | 13일 | 정조선황제 | 2위  |  | 1675 | 900  | 2390 |
| 4일  | 세조대왕  | 2위  |   | 1980 | 890 | 2360 | 14일 | 순조숙황제 | 2위  |  | 1670 | 805  | 2340 |
| 5일  | 성종대왕  | 3위  |   | 1970 | 880 | 2345 | 15일 | 문조익황제 | 2위  |  | 1670 | 785  | 2390 |
| 6일  | 중종대왕  | 4위  |   | 2230 | 905 | 2380 | 16일 | 한종성황제 | 3위  |  | 1800 | 810  | 2340 |
| 7일  | 선조대왕  | 3위  |   | 1820 | 660 | 2390 | 17일 | 철종성황제 | 2위  |  | 1690 | 920  | 2370 |
| 8일  | 인조대왕  | 3위  |   | 1870 | 705 | 2390 | 18일 | 고종대황제 | 2위  |  | 1860 | 1030 | 2315 |
| 9일  | 효종대왕  | 2위  |   | 1915 | 840 | 2390 | 19일 | 순종호황제 | 3위  |  | 1775 | 770  | 2410 |
| 10일 | 한종대왕  | 2위  |  | 1915 | 815 | 2390 |     |       |     |                                                                                   |      |      |      |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조선후기의 종묘 정전 신실 공간의 조성방식과 신실에 봉안된 신주 및 각종 기물들과의 상호관계에 관한 내용이다. 신실 공간의 구조는 용도에 따라 봉안공간과 제향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공간의 용도에 맞춰 복합적 구조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즉 봉안공간이 신주라는 핵심에 집중되어 있는 구조라면, 제향공간은 다양한 제물과 제기들이 넓게 진설되고 여러 명의 참여자들이 흩어져 각각의 위치에 도열하는 방식의 구조로 구분할 수 있다. 또 신실은 주림과 면장을 통해 봉안과 제향이란 두 개의 공간으로 나뉘기도 하고 하나로 합쳐지기도 하였다. 즉 제향을 올리지 않을 때에는 양 공간 사이를 면장과 주림으로 겹겹이 드리워 구분하고 신실을 가렸다. 하지만 제향이 시작되며 면장과 주림을 걷어 올림으로써 두 공간을 통하게 하여 조상과 후손이 만나는 새로운 공간이 펼쳐지게 하였다. 신실 공간이 봉안과 제향이란 두 용도로 운영되었다는 사실은 단지 용도의 차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 공간의 용도에 맞는 신주, 의물, 의장, 제기, 목가구들을 구분하여 배치함으로써 실현된다. 즉 신실이란 공간을 사용하는 목적과 시기에 따라 여러 장치들을 사용하여 구분하고 연결함으로써 동일한 공간이 엄격한 절차 속에서 효과적으로 연출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신실 내부의 신주를 비롯한 각종 기물의 종류 및 조성방식은 세 가지 속성을 공유한다. 즉 정형성, 중층적 봉안형식, 동일한 공간의 연출과 반복이란 요소들을 공유한다. 기물에 내재된 속성들은 곧 신실공간의 특징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 그리고 신실 내 공예품들의 밀접한 상호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신주와 의물의 작은 변화가 연쇄적으로 주변의 기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여러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신주, 의물, 제기, 가구 등이 서로 별개의 존재들이 아니라 밀접한 상호관계 놓여있었다는 점과 당시 발생하는 다양한 변수들을 수용하면서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들도 읽을 수 있었

다. 조선왕실은 전례를 준수하는 종묘 신실 운영 원칙에 따르면서 여러 불가피한 변수들이 발생하면 최대한 차이를 줄이고자 하는 방향으로 신실을 운영하였고, 이를 통해 종묘 정전 신실의 전체적인 동질성과 균형감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된다.

투고일 2021. 3. 22.

심사일 2021. 5. 17.

게재 확정일 2021. 5. 17.

주제어(keyword) 종묘(Jongmyo), 정전(the Royal Ancestral Shrine), 신실(Ancestral Room), 신주(Ancestral Tablets), 제기(Ritual Vessels), 왕실공예(Royal Craft-works), 물질문화(Material Culture)

## Abstract

### The Interior Methods and Characters of Royal Ancestral Room of Jongmyo in the Late Joseon Dynasty

Koo, Hyein

This study is about the method of constructing a shrine space in Jongmyo Jeongjeon Hall in the late Joseon Dynasty and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ancestral tablets and various objects enshrined in the shrine. The inner space in the shrine can be divided into a enshrined space and a ritual space according to its purpose. The enshrined space is concentrated at the core of the ancestral tablets and the ritual space is displayed with various offerings and ritual vessels arranged and served by participants. The ancestral rooms were divided by the red blinds and curtains. When the ritual was not held, the enshrined room and ritual room were separated by blinds and curtains, when the ritual began, they were rolled up to open a combined space where ancestors and descendants met. The fact that the ancestral room was operated for two purposes, enshrinement and ritual, means not only the difference in the purpose of each space, but also the ways arranging ancestral tablets, ritual objects, ritual vessels and wooden furniture suitable for each space.

There are three characteristics of the type and arrangement of ritual objects, including the ancestral tablets, the establishing stereotypes, the overlapping and wrapping methods, and the repeatation the same space. And it can be observed the close interrelationship and effects of the ancestral tablets, ritual objects and furniture in the ancestral rooms. Through many historical cases, it is confirmed that the ritual materials are not separate beings, but were closely related. And We can read ancestral efforts to accept the various changeable situation occurred in keeping with the three principles.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Jongmyo Shrine's operation, the shrine was operated in a way to reduce the difference as much as possible. Through this way, the overall unity and balance of the Jongmyo Shrine was maintained.